

한미 FTA 최종 협상... 타결 묘수 찾기 숨가쁜 행보



26일 오전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한미FTA 통상장관급 회담 첫날 김현중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과 카린 비티아 USTR 부대표(왼쪽)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농산물 절충중... '빅딜'은 막판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최종 협상이 26일 서울 한남동 하얏트호텔에서 시작됐지만 양측 협상단은 이전에 비해 한층 긴장된 모습을 보이며 협상의 진행상황에 대해 일체 함구하고 있어 주고받기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매우 답답한 상황이다.

그러나 양측이 사실상 시한일 30일 저녁까지 협상을 마무리짓겠다는 목표로 고위급과 실무급 접촉을 병행하며 타결을 위한 묘수찾기에 숨가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9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한덕수 총리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사실상 '한미 FTA' 청문회가 될 전망이다. 청문회 일정이 FTA 협상타결 예상시점(30일)과 맞물리는데 한 지명자가 대통령직속 '한미 FTA체결지원위원회'라는 공식 지위를 맡고 있다는 점에서 FTA 논란이 다른 이슈들을 집어삼키며 청문회의 한복판을 차지할 것이 확실시된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원칙적 찬성 기조 속에서 미흡한 점을 추궁하는 온건한 스탠스를 취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통합신당모임, 민주당, 민주노동당은 협상반대 또는 연기론을 제기하며 선명한 대립의 날

주초 쟁점조율...시한일 30일 전후 일괄타결 시도

2주전 8차 협상에서 몇 가지 기술적 문제만을 남겨놓은 분야 등에서도 최종 마무리 작업을 해야한다. <농산물은 실무 우선-진짜 담판은 막판>=양측의 이해가 가장 첨예하게 충돌하고 있는 농산물 분야는 실무급 절충이 계속된 가운데 27일부터는 민동석 농림부 차관보와 이날 저녁 입국한 미국의 리처드 크라우더 USTR 수석 농업협상관이 나서 고위급 절충을 벌인다. 여러 수준에서 병행되고 있는 농협협상의 이런 움직임은 장관급 회담의 주고받기 패키지를 단순화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다. 농림부에 따르면 우리측은 장관급 최종

답안 테이블에 올릴 농산물을 2~3가지, 아무리 많아도 5~6가지를 넘기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쇠고기와 돼지고기, 오렌지, 일부 낙농품 등이 후보군으로 꼽힌다. 농협협상을 맡고 있는 배종하 농림부 국제농업국장은 "실무협상에서는 아직 쌀이 거론되지 않았으며 오렌지 등에서는 양측의 의견차가 큰 상태"라고 협상 진행상황을 전하고 "우리측의 민감성을 반영하기 위한) 계절관세나 저율관세할당(TRQ)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빌트인'은 개성공단만>=이런 가운데 미타결 쟁점의 유력한 해소방안으로 거론됐던 '빌트인'(built-in) 방식의 '덮어두기' 범위에 대한 정부 고위 당국자의 발언이 나와 주목된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남북문제 외의 다른 쟁점에 빌트인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며 "빌트인 방식은 개성공단 문제에만 적용된다"고 명시적으로 밝혔다. 권 부총리의 언급대로라면 개성공단과 더불어 당초 유력한 '빌트인 어젠다'로 꼽혔던 무역구제분야는 어떤 형태로든 이번 협상에서 마무리짓겠다는 이야기가 된다.

▲'빌트인 방식'=통상협상에서 막판까지 조율이 안되는 쟁점에 대해 FTA 발효 이후 당사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협정문에 근거 규정을 마련해 언젠가는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통상 협상에서는 어려운 쟁점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많이 쓰인다. 한국의 경우 한-칠레 FTA 때 이 방식을 적용, 고추,마늘,분유 등을 도하계 받아준다(DDA) 협상 타결 뒤 논의하기로 해 협정문을 타결시켰다.

"한미FTA 협상에 스크린쿼터 이용말라"

여야 국회의원·대책위 성명

여야 국회의원 5명과 '문화전략지 및 스크린쿼터 사수 영화인 대책위' 소속 영화인들은 26일 "다시 스크린쿼터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의 협상도구로 이용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과 문광위 소속 정병국 김재은 손봉숙 천영세 의원, 영화배우 안성기, 영화감독 정지영 이현승, 영화인협회 신우철 이사장 등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보도에 따르면 한미 FTA 수석대표간 고위급 회의에서 스크린쿼터를 다시 살아날 수 없게 하는 쪽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스크린쿼터 축소로 한국영화화를 부활하지 못하도록 관에 넣고 못을 박겠다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한미 FTA 협상과 스크린쿼터 축소가 별개의 문제라고 누누이 강조했다던 정부가 철저히 거짓으로 일관했다는 것을 확인하며 참담할 뿐"이라며 "노무현 정부와 한미 FTA 협상단은 그동안, 그들만에 의한, 그들만을 위한 한미 FTA를 강행하면서 말바꾸기, 거짓말하기, 자료삭제 및 누락 등 갖은 수단을 동원, 스크린쿼터 축소로 눈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한국영화에서 한가닥 새겨줄마져 거뒀거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한미 FTA 협상 막바지에 스크린쿼터를 빌드 카드로 삼는 것은 한미 FTA 협상을 위해 한국영화를 두 번 죽이는 것이자 영화인들과 한국영화를 사랑하는 국민들을 농락하는 것"이라며 "유네스코의 '문화다양성협약'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더이상 스크린쿼터를 한미 FTA 협상의 제물로 삼지 말라"고 요구했다.

민노당, 한미FTA 국조 제안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대표는 26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민주당, 통합신당모임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국경조사를 수용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한미 FTA가 체결되면 농업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어떤 실익이 있는지를 밝혀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국조 제안이 시급히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농해수위 등 몇 개 유관 상임위에서라도 (한미 FTA 관련) 청문회가 열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장과 시각

면세유 폐지, 아직 이르다



송기동 사회2부 차장

'농·어업용 유류에 대한 비과세(면세)조치' 적용 시한 종료 시점이 다가오지 않았다. 당연히 농·어민들 사이엔 이를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1986년 도입된 면세유 제도는 그동안 여러 차례 연장됐으나 2004년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새 개정안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오는 6월 30일자로 만료된다.

지난달 8일 여·야의원 20여명이 농담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한시적 감면규정을 영구적으로 전환하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재경위만 통과했을 뿐 아직 본회의에는 상정조차 안된 상태다.

만일 면세유 제도가 폐지될 경우 농업용으로 쓰이는 경우의 경우 1ℓ 당 552.5원(2006년 평균 기준)에서 내년부터는 1천190원으로 오르게 되고, 휘발유 역시 1ℓ 당 630.88원(2006년 평균 기준)에서 1천313원으로 뛰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면세 경유를 사용하는 어민을 비롯 도내 시설 하우스 및 화훼 농가의 경우 연료비가 급증될 우려 지적탄을 맞게 된다.

"한미 FTA 등 개방 가속화로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농민들에게 면세유류 혜택마저 없앤다면 농사를 짓지 말라는 얘기가 마찬가지 아닙니까?"

화순 도곡면에서 파프리카 농사를 짓는 문모(47)씨는 "면세유 제도가 폐지될 경우 연간 7천만 원에 달하는 난방비가 경증 뛰게 돼 시설 원예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온실면적은 4천597ha로 이 가운데 유류(油類) 에너지를 이용해 난방을 하는 재배면적은 37%에 달하는 1천717ha에 달하고 있다.

특히 시설원예농가의 난방비 부담은 경영비용의 35% 내외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민들 역시 마찬가지이다. 완도군 청산면에서 다시마와 돛, 전복을 하며 3척의 배를 운영하는 박모씨는 "1년에 면세유 경유를 30드럼(200ℓ)가량 사용하고 있다"며 "그렇지 않아도 어황이 좋지 않은데 면세유 혜택마저 없앤다면 정말 '담이 없다'고 말했다.

면세유제도 폐지는 살농(殺農)정책이나 다를 없다. FTA 등 시장 개방으로 최대 위기에 빠진 농촌을 살리지는 못할 망정 되레 죽여서야 되겠는가.

관련 법률안을 폐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면세유 제도가 유지돼야 농어촌도 살고 국가도 산다는 것을 정부와 국회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song@kwangju.co.kr

한덕수 인사청문회 'FTA 암초'

일각선 FTA-인준 연계 움직임도

을 세워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양측의 대립은 당장 청문회에 대한 접근 태도에서부터 확연히 드러난다. 한나라당과 우리당은 "청문회와 FTA는 별개"라며 인준절차를 정상 진행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통합신당모임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내에서는 이번 청문회를 FTA 검증의 장으

로 삼겠다며 인준과 연계하려는 기류가 대두되고 있다. 다만 양당의 공식 스탠스와는 달리 청문 위원에 따라서는 반대론도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반면 통합신당모임, 민주당, 민주노동당은 청문회를 앞두고 '전'의 불태우고 있다.

민주당 신중식 의원은 "FTA는 결국 농업의 희생"이라며 "쌀 문제는 이미 끝났고 소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정부는 정직하게 손익계산서를 내놓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청문회의 주요 검증이슈에는 FTA 문제 외에 ▲한 지명자가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있던 2002년 '마늘협상'에 대한 대처 과정 ▲8·31 부동산대책에 대한 입장 ▲교육정책 기조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재산이나 도덕성 등 한 지명자의 개인적 자질문제는 크게 부각되지 않을 것이라 예상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덤프트럭용 자동달개

대리점 모집 안내

본사는 2006년 12월 29일 100% 국산인 자동차용 자동달개(이하 '자동달개')를 개발하여 국내외 시장 진출을 위한 대리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본사는 '자동달개'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개발목적

- 안전성 확보
- 구조 간단, 설치 및 사용 용이
- 차량도 사용

주요특징

- 높이 조절이 편리 (수동/자동)를 겸용하는 등
- 안전장치 (과하중 방지, 안전장치 등)
- 100kg 내외의 적재량 (적용 차량에 따라)
- 차량용 (트럭) 용이 가능함

특징

- 100kg 내외의 적재량 (적용 차량에 따라)
- 안전장치 (과하중 방지, 안전장치 등)
- 100kg 내외의 적재량 (적용 차량에 따라)

[주]SY테크(수영) 문의: 054-261-3111 / 054-261-3112 Fax: 054-261-3113
www.sytech.com http://21609y.com

시몬스침대 광주 금남로점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소리없는 편안함

이제 들을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OPEN

주요특징

- 100% 국산인 자동차용 자동달개(이하 '자동달개')를 개발하여 국내외 시장 진출을 위한 대리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 본사는 '자동달개'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주요특징

- 100% 국산인 자동차용 자동달개(이하 '자동달개')를 개발하여 국내외 시장 진출을 위한 대리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 본사는 '자동달개'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주요특징

- 100% 국산인 자동차용 자동달개(이하 '자동달개')를 개발하여 국내외 시장 진출을 위한 대리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 본사는 '자동달개'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